

##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전망

배 중 렬\*

- I. 문제제기
- II. 북·중 무역의 현황과 특성
- III.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실태와 특징
- IV.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요 약

북한의 핵실험후 대북 경제제재론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대북경제협력 및 제재의 방향과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것은 북·중 무역이 2001년 이후, 대북투자는 2003년 이후 새로운 궤적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선 무역은 대중무역 적자폭의 지속적 증가속에 대중수입에서는 돼지고기, 가전제품, 기계류 등이, 대중수출에서는 철광석, 무연탄, 어패류, 의류 등이 약진하면서 수출입품목구조에 변화가 초래되고, 대중수출에서는 요령성이, 대중수입에서는 흑룡강성이 각각 10%정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동북삼성내의 상대적 위상도 변화하였다. 대북투자는 보다 드라마틱했다. ‘도로·항구·개발구 일체화’라는 슬로건하에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강화와 함께 ①철광, 동광 등 지하자원개발, ②항만 및 공단, 수력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 ③수산자원의 생산제휴, ④제조업, 유통업 등 전략적 산업분야에 투자가 집중되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보다 악화된 인플레이션,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의 수립 필요성 등 북한측 요인과 함께 중국기업의 자본축적 증가에 위한 글로벌화, 경제성장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확보, 동북진흥계획에 의한 유휴설비의 증대, 북한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기대감 제고 등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성정부의 개입흔적, 대연변조선족자치주정책의 이중성 등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동인은 중국 중앙정부의 드라이브로 분석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구도속에 중국의 대북경제제재 으뜸장이 있었지만, 최근의 북·중 무역통계는 아직 유의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조사팀장

## I. 문제제기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발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역학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기존의 안보지형도가 바뀌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경제외적변수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북·중 및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제적 관심증대로 그러한 흐름의 일환이었다. UN를 통한 다자간 대북 경제제재가 시작되는 가운데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이 병행되면서 북한의 변화유도를 둘러싼 ‘경제협력론’과 ‘경제제재론’의 힘겨루기는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사실 파산상태에 있던 북한경제가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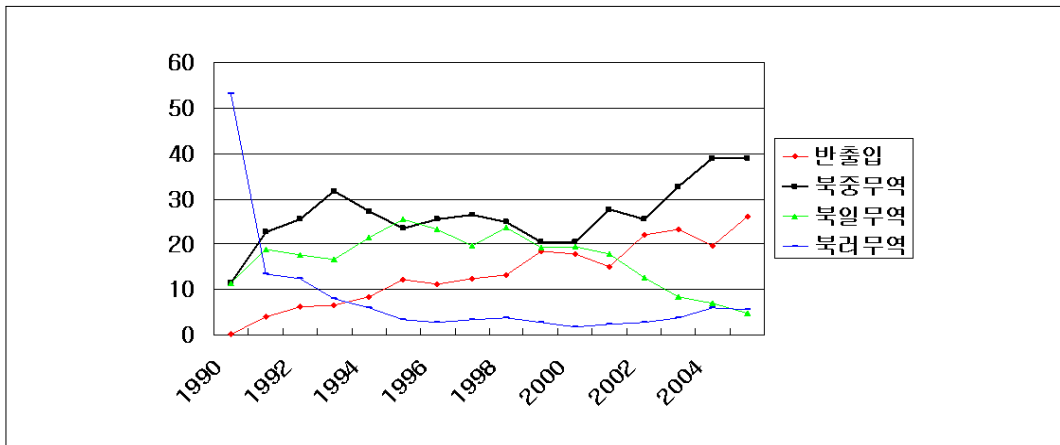
년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기조로 전환된 것은 중국과 남한의 경제적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맞춤형 봉쇄정책의 채택가능성이 시사(2003. 12. 28)된 이후 미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제재 압박수위를 점차 증가시킨 반면, 중국과 남한은 대북 경제제재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오히려 대북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중간 경제협력확대는 괄목할만한 수준이었다(<그림 1> 참조).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과 남한의 이러한 선택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과정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의 선택이 바로 그것이었다. UN의 대북 제재결의 이후 일부 금융

<그림 1>

북한무역(반출입 포함)에서 주요국의 비중

(단위: %)



자료: 통일부, KOTRA

거래의 제한<sup>1)</sup>, 통관검색 강화 등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섰던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를 분수령으로 일부 제재조치를 완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6자회담의 순항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향후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및 제재의 방향과 수준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풍향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기능하게 되었다.

## II. 북·중 무역의 현황과 특성

주지하다시피 북·중 무역은 1950년에 체결된 ‘북·중 제1차 무역협정’, 그리고 1961년에 체결된 ‘북·중 우호합작조약’을 근간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바터무역과 우호가격을 바탕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던 북·중 무역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1992년 1월 바터무역을 경화결제로 전환하는 새

로운 북·중 무역협정의 체결과 동년 8월의 한·중 국교정상화였다. 북·중간의 마찰이 1993년부터 북·중 고위급 상호방문의 중단으로 귀결되면서 성장세에 있던 북·중 무역은 1993년 9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고 1999년에는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

북·중 무역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것은 6년간 중단되었다가 1999년 6월에 재개된 북·중 고위급 상호방문이었다. 대중 무역이 1999년을 바닥으로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탄력이 붙은 북·중 무역은 2003년에는 10억 달러대를 돌파하고 2005년에는 16억 달러대에 육박하였다. 특히, 2005년 3월에 체결된 ‘북·중 투자촉진과 보호에 관한 협정’은 북·중 무역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듯 했다. 그러나 순항하던 북·중 무역에 새로운 도전을

〈표 1〉 1990년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억 달러)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중무역액	4.83	6.10	6.97	9.00	6.24	5.50	5.66	6.56	4.13	3.70	4.88	7.37	7.38	10.23	13.85	15.80
무 역 총 액	41.70	25.84	25.55	26.46	21.00	20.52	19.77	21.77	14.42	14.80	19.69	22.70	22.60	23.91	28.57	30.00
반 출 입 액	0.13	1.11	1.73	1.87	1.95	2.87	2.52	3.08	2.22	3.33	4.25	4.01	6.42	7.24	6.97	1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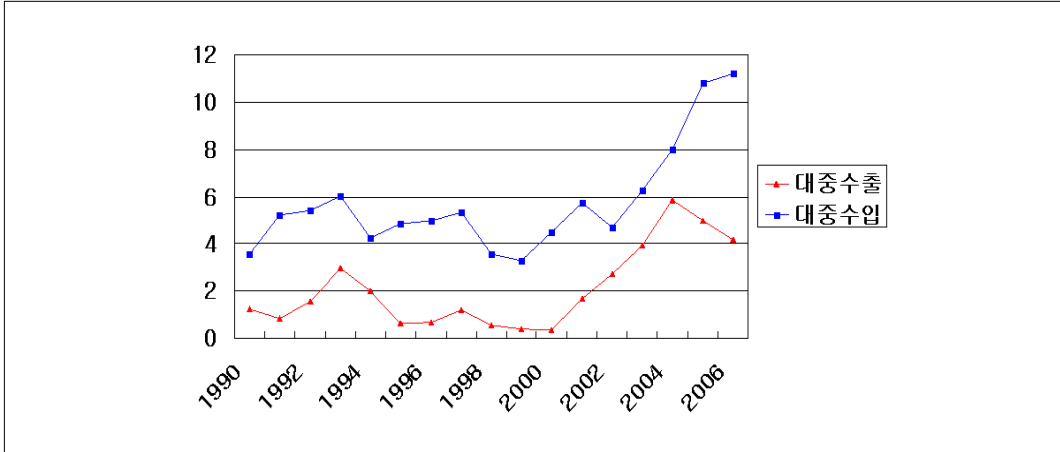
자료: KOTRA, 통일부.

1) 중국은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4개 은행의 대북 송금업무를 전면 중단하였다(조명철·정승호, “UN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상의 변화,” 『오늘의 세계경제』, 2006. 11.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림 2〉

북한의 대중 수출입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제기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었다. 2006년도 북·중 무역은 2005년도 수준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7년도 북·중 무역의 수준은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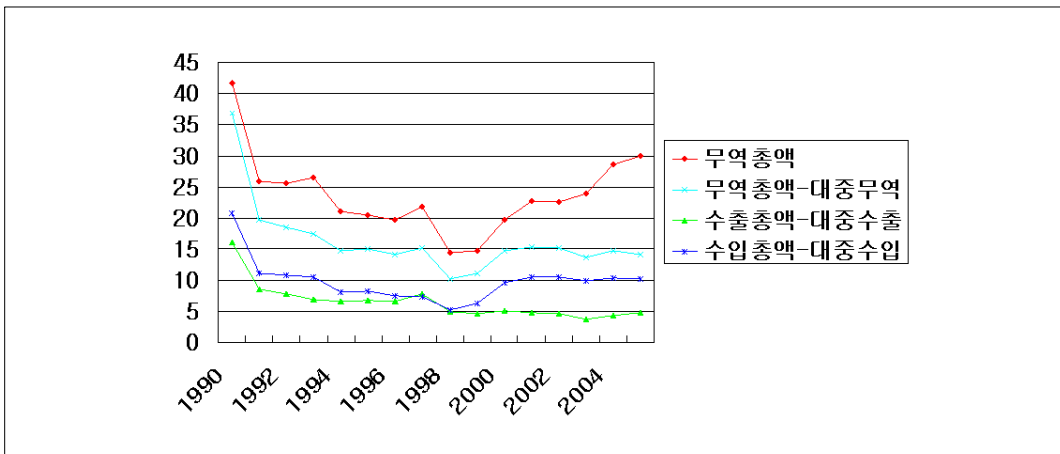
1. 대중 무역 적자폭의 증가

최근 북·중 무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는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폭의 대폭적

〈그림 3〉

북한 무역성장의 대중 경제의존도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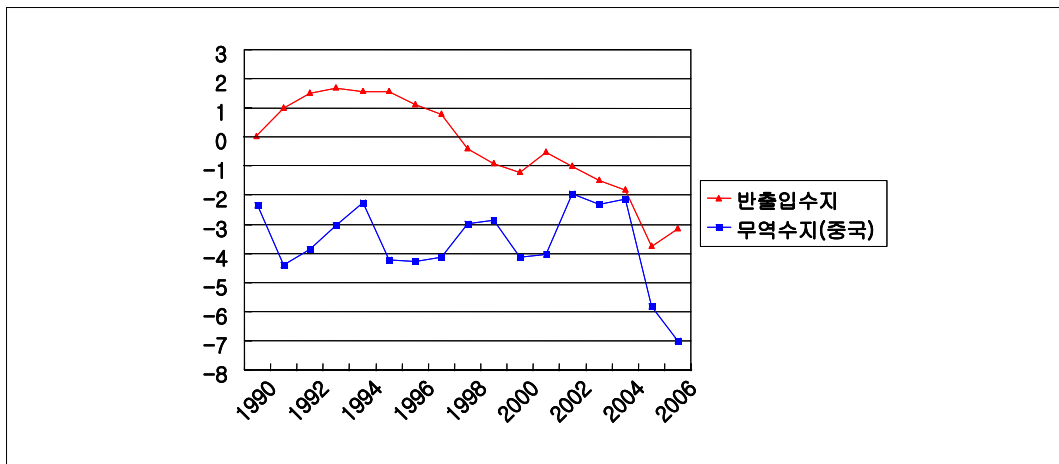


자료: KOTRA

〈그림 4〉

## 북한의 대중 무역 및 반출입 수지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 및 통일부(2006년은 1~11월 통계)

확대이다. 대중 수출이 2004년 5억 8,600만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지만,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대중 수입이 그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2004년 8억 달러, 2005년 10억 8,100만 달러를 기록한 대중수입이 2006년에는 12억 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2억 3,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액은 2005년에는 5억 8,200만 달러, 2006년에는 7억 달러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그림 3〉과 〈그림 4〉는 이러한 대중 적자폭의 대폭적인 증대에 함축되어 있는 북한경제 양적 성장의 허실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대중 무역의 증가가 북한상품

의 국제경쟁력강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대중 수출입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수출은 5억 달러대를, 북한의 수입은 10억 달러대의 벽을 좀처럼 뚫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2006년에 들어 약간 개선될 조짐을 보여주는 반출입수지와는 달리 대중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무역의 성장이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도 증가에 바탕을 두고 있어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북한경제의 수출입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2. 수출입 품목구조의 변화

첫 번째 단서는 식량, 석유 등 전략물자중

〈표 2〉

## 북한의 주요 대중수입품목의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식용육류 (%)	3,788 (0.78)	3,711 (0.74)	4,088 (0.76)	2,828 (0.80)	1,265 (0.38)	1,474 (0.33)	6,701 (1.17)	10,372 (2.22)	63,623 (10.14)	140,575 (17.58)	104,219 (9.64)	107,454 (9.61)
곡 물 (%)	6,522 (1.34)	30,032 (6.04)	119,270 (22.31)	51,433 (14.46)	43,706 (13.30)	34,049 (7.55)	62,621 (10.97)	29,910 (6.4)	49,961 (7.96)	15,388 (1.92)	49,811 (4.61)	15,069 (1.35)
제분제품 (%)	19,608 (4.03)	96,505 (19.42)	73,770 (13.80)	24,863 (7.00)	10,096 (3.07)	6,886 (1.53)	10,858 (1.90)	10,044 (2.15)	8,062 (1.28)	14,539 (1.82)	24,096 (2.23)	24,809 (2.22)
광물연료 (%)	207,345 (42.65)	157,545 (31.70)	108,073 (20.21)	84,790 (23.84)	79,499 (24.19)	117,893 (26.15)	161,800 (28.35)	117,969 (25.24)	180,727 (28.80)	204,657 (25.60)	285,714 (26.43)	315,770 (28.24)
방직원료 · 제품 (%)	49,073 (10.09)	31,153 (6.27)	27,324 (5.11)	24,448 (6.88)	22,288 (6.78)	49,273 (10.93)	49,944 (8.75)	38,572 (8.25)	40,456 (6.45)	48,140 (6.02)	81,684 (7.56)	90,184 (8.07)
일반기계 전기전자 (%)	45,995 (9.46)	19,453 (3.91)	24,402 (4.56)	16,333 (4.59)	24,562 (7.47)	35,457 (7.86)	46,550 (8.16)	56,921 (12.18)	66,624 (10.62)	85,975 (10.75)	133,306 (12.33)	163,795 (14.65)
수입총계 (%)	486,187 (100.00)	497,029 (100.00)	534,680 (100.00)	355,705 (100.00)	328,660 (100.00)	450,824 (100.00)	570,660 (100.00)	467,309 (100.00)	627,583 (100.00)	799,503 (100.00)	1,081,103 (100.00)	1,117,990 (100.00)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심의 기준 수입패턴이 식품(주로 육류), 가전제품, 일상생활용품 등으로 그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2006년 11월말 현재 HS 2자리 품목기준으로 광물연료(27류), 식용육류(02류), 전기기기(85류), 일반기계(84류), 플라스틱제품(39류), 인조플라멘트섬유(54류), 철강(72류), 제분제품(11류), 비료(31류) 등의 상위 9개 품목의 수입액이 743,854천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66.53%를 차지했다. 〈표 2〉에서 보듯이 1995년 50%대에 육박하던 원유(통계에서는 광물연료)·식량(통계에서

는 곡물, 제분제품) 등 전략물자 수입은 북·중 무역액이 증대하는 가운데 점차 그 비중이 30%대로 하락하였다. 반면, 식용육류 수입이 2003년부터 급증하면서, 일반기계·전기제품(가전제품)은 1998년을 바닥으로 지속적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인조플라멘트 섬유는 2002년부터 10위권내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수입주종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식량, 석유에서 식품(주로 육류), 가전제품, 일상생활용품 등으로 대중 수입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①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입물

〈표 3〉 북한의 주요 대중수출품목의 추이

(단위: 천 달러,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어 패 류 (%)	10,792 (16.97)	6,499 (9.47)	5,563 (4.58)	2,748 (4.79)	5,755 (13.80)	4,047 (10.87)	47,977 (28.76)	143,016 (52.80)	206,931 (52.34)	261,806 (44.71)	92,432 (18.52)	39,931 (9.53)
광·슬 랙 (%)	7,364 (11.58)	7,254 (10.57)	6,920 (5.70)	5,946 (10.37)	2,415 (5.80)	2,607 (7.01)	6,434 (3.86)	8,537 (3.15)	14,963 (3.78)	60,114 (10.27)	95,066 (19.05)	106,820 (25.51)
광물연료 (%)	1,798 (2.83)	1,830 (2.67)	33,522 (27.57)	7,889 (13.76)	2,339 (5.61)	3,416 (9.18)	4,318 (2.59)	11,295 (4.17)	17,250 (4.36)	53,100 (9.07)	111,855 (22.41)	89,404 (21.35)
목 재 · 목 제 품 (%)	4,207 (6.61)	19,301 (28.12)	28,454 (23.40)	15,853 (27.66)	13,837 (33.18)	9,926 (26.67)	4,654 (2.79)	9,425 (3.48)	13,725 (3.47)	15,247 (2.60)	15,050 (3.02)	23,690 (5.66)
방직원료 · 제 품 (%)	2,505 (3.94)	4,444 (6.47)	2,994 (2.46)	1,190 (2.08)	968 (2.32)	2,584 (6.94)	28,508 (17.09)	43,137 (15.93)	57,637 (14.58)	55,762 (9.51)	67,253 (13.47)	67,463 (16.11)
철 강 (%)	19,342 (30.41)	11,791 (17.18)	16,972 (13.96)	10,511 (18.34)	9,750 (23.38)	8,662 (23.28)	23,670 (14.20)	27,860 (10.29)	46,794 (11.84)	75,925 (12.97)	72,596 (14.54)	31,330 (7.48)
수출총계 (%)	63,606 (100.00)	68,638 (100.00)	121,610 (100.00)	57,313 (100.00)	41,709 (100.00)	37,214 (100.00)	166,797 (100.00)	270,863 (100.00)	395,344 (100.00)	585,703 (100.00)	499,140 (100.00)	418,816 (100.00)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자에 대한 수요증대, ②신부유층의 형성 등 북한 국내의 계층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일반 기계·전기제품의 수입비중 증대는 북한 당국의 기간산업 생산정상화노력과 함께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증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단서는 2000년 이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대중 수출동향이다. 2006년 11월말 현재 HS 2자리 품목기준으로 광·슬랙(26류), 광물연료(27류), 의류·부속품(62류), 어패류(03류), 철강(72류), 목재·목제품(44류) 등 상위 6개

품목의 수출액이 350,525천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3.6%를 차지했다. 어패류, 의류제품(통계에서는 방직원료·제품), 철강 수출액은 2001년부터, 철광석(통계에서는 광·슬랙), 석탄(통계에서는 광물연료) 수출액은 2004년부터 급증하면서, 목재·목제품 수출액은 2002년부터 완만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표 3〉 참조).

그러나 대중 수출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했다는 〈그림 3〉의 함의를 감안할 때 어패류는 북·중간의 어업자원 공동개발의 성과가, 의류제품은

〈표 4〉

어패류, 방직원료·제품의 대중·대일 수출과 반입추이

(단위: 천 달러,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어패류	대중수출 (요령성)	10,792 ( - )	6,499 ( - )	5,563 ( - )	2,748 (1,546)	5,755 (3,640)	4,047 (2,547)	47,977 (46,901)	143,016 (136,194)	206,931 (200,241)	261,806 (232,313)	92,432 (72,271)	39,931 (14,674)
	대일수출	63,367	55,852	50,553	52,658	72,420	89,235	102,541	113,187	78,000	71,697	36,309	-
	반 입	2,658	8,900	12,807	9,059	23,302	34,422	34,227	60,626	81,413	56,061	70,454	71,231
방직·원료·제품	대중수출 (요령성)	2,505 ( - )	4,444 ( - )	2,994 ( - )	1,190 (513)	968 (674)	2,584 (1,374)	28,508 (27,673)	43,137 (41,434)	57,637 (56,283)	55,762 (54,592)	67,253 (65,466)	67,463 (66,418)
	대일수출	127,721	123,906	95,218	64,966	60,184	68,729	59,350	56,593	37,205	25,922	13,783	-
	반 입	28,685	41,895	45,707	37,885	45,103	52,983	54,364	85,021	95,862	95,408	120,153	136,943

자료: KOTRA,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중국의 대북 임가공무역 증대가, 철강, 철광석, 석탄 등은 중국의 자원개발수입정책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패류와 의류제품의 대중수출 증가는 북·일 무역의 감소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4〉 참조).

### 3. 수출입 채널의 변화

세 번째 단서는 북한의 대중 성별 수출입 동향이다. 첫째는 북한의 대중 무역에 있어서 동북삼성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의 변화 조짐이다. 2006년 11월말 현재 HS 2자리 품목기준으로 북한의 대요령성 수출은 의류·부속품(62류), 광·슬랙(26류), 광물연료(27류), 어패류(03), 철강(72류) 등 상위 5개 품목이 139,427천 달러로 대요령성 전체수출의 75.63%를, 대요령성 수입

은 광물연료(27류), 일반기계(84류), 플라스틱제품(39류), 전기기기(85류), 철강(72류) 등 상위 5개 품목이 148,819천 달러로 대요령성 전체수입의 45.13%를 차지하고 있다. 대길림성 수출은 광·슬랙(26류), 어패류(03류), 나무·나무제품(44류), 철강(72류), 광물연료(27류) 등 상위 5개 품목이 108,853천 달러로 대길림성 전체수출의 93.56%를, 대길림성 수입은 곡물(10류), 전기기기(85류), 차량부품(87류), 인조플라멘트섬유(54류), 플라스틱제품(54류) 등 상위 5개 품목이 33,253천 달러로 대길림성 전체수입의 33.06%를, 대흑룡강성 수출은 철강품목(72류)이 대흑룡강성 전체수출의 94.77%를, 대흑룡강성 수입은 광물연료(27류), 식용육류(02류) 등 상위 2개 품목이 251,876천 달러로 대흑룡강성 전체수입의 92.50%를 차지해 특정품목에 대한



〈표 5〉

## 북한의 대동북삼성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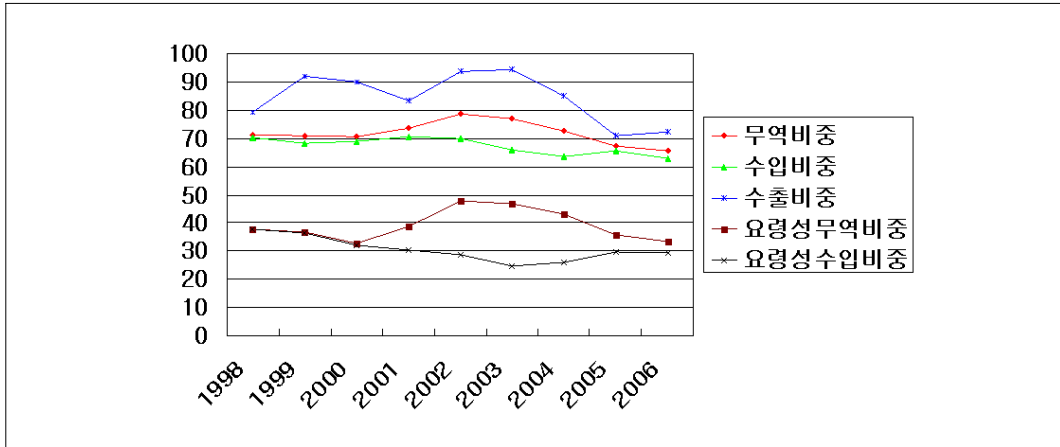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중 무역	전 체	413,018	370,369	488,038	737,457	738,172	1,022,927	1,385,206	1,580,243	1,536,806
	수 입	355,705	328,660	450,824	570,660	467,309	627,583	799,503	1,081,103	1,117,990
	수 출	57,313	41,709	37,214	166,797	270,863	395,344	585,703	499,140	418,816
동북 삼성 합계	전 체 (무 역 비 중)	294,612 (71.33)	263,078 (71.03)	344,327 (70.55)	541,428 (73.42)	580,691 (78.67)	785,512 (76.79)	1,004,202 (72.49)	1,061,227 (67.16)	1,005,146 (65.40)
	수 입 (수 입 비 중)	249,237 (70.07)	224,695 (68.37)	310,883 (68.96)	402,683 (70.56)	327,373 (70.05)	412,729 (65.76)	507,066 (63.42)	707,189 (65.41)	702,633 (62.85)
	수 출 (수 출 비 중)	45,375 (79.17)	38,383 (92.03)	33,444 (89.87)	138,745 (83.18)	253,318 (93.52)	372,783 (94.29)	497,136 (84.88)	354,038 (70.93)	302,513 (72.23)
요령성	전 체	156,546	136,782	159,177	286,690	352,414	477,502	596,816	566,526	514,098
	수 입	134,351	118,793	144,285	173,396	134,617	154,462	207,450	323,538	329,743
	(광 물 연 료)	(13,647)	(18,103)	(23,608)	(19,069)	(14,491)	(27,440)	(37,414)	(57,450)	(52,801)
	(일 반 기 계)	(2,810)	(3,222)	(4,003)	(6,471)	(6,421)	(7,635)	(11,182)	(23,225)	(31,349)
	(플라스틱제품)	(8,379)	(6,738)	(6,612)	(12,400)	(12,649)	(14,619)	(21,371)	(29,726)	(28,168)
	(전 기 기 기)	(3,985)	(4,565)	(7,603)	(10,603)	(7,274)	(8,577)	(12,409)	(19,322)	(19,218)
	(철 강)	(8,808)	(10,022)	(12,446)	(12,916)	(12,379)	(9,456)	(19,181)	(19,918)	(17,283)
	수 출	22,195	17,989	14,892	113,294	217,797	323,040	389,366	242,988	184,355
	(의류·부속품)	(0)	(0)	(1)	(26,741)	(37,941)	(52,229)	(48,969)	(58,288)	(59,123)
	(광 · 슬 랙)	(1,699)	(1,149)	(1,258)	(3,725)	(3,266)	(6,020)	(9,493)	(15,813)	(29,456)
	(광 물 연 료)	(1,254)	(2,323)	(3,399)	(2,820)	(7,013)	(7,915)	(12,280)	(27,887)	(24,779)
길림성	(어 패 류)	(1,546)	(3,640)	(2,547)	(46,901)	(136,194)	(200,241)	(232,313)	(72,271)	(14,674)
	(철 강)	(3,552)	(2,825)	(1,812)	(3,082)	(10,495)	(24,231)	(30,786)	(35,719)	(11,390)
	전 체	67,545	69,632	90,757	116,274	115,056	147,727	200,486	241,394	216,929
	수 입	46,180	49,680	72,456	91,652	81,554	98,365	95,282	138,182	100,589
	(곡 물)	(14,590)	(12,771)	(21,927)	(30,964)	(24,363)	(29,579)	(9,432)	(30,036)	(7,968)
	수 출	21,365	19,952	18,301	24,622	33,502	49,362	105,204	103,212	116,340
	(광 · 슬 랙)	(2,535)	(683)	(904)	(1,213)	(1,800)	(3,024)	(22,566)	(33,183)	(41,821)
흑룡강성	(어 패 류)	(400)	(1,336)	(1,222)	(975)	(6,508)	(6,627)	(22,248)	(17,658)	(24,225)
	(나 무 · 제 품)	(11,394)	(9,820)	(8,317)	(3,509)	(7,687)	(12,287)	(13,791)	(13,526)	(22,483)
	(철 강)	(4,554)	(6,362)	(5,870)	(15,091)	(14,190)	(20,852)	(36,224)	(27,680)	(17,136)
	전 체	70,521	56,664	94,393	138,464	113,221	160,283	206,900	253,307	274,119
	수 입	68,706	56,222	94,142	137,635	111,202	159,902	204,334	245,469	272,301
	(광 물 연 료)	(50,864)	(43,229)	(80,233)	(122,471)	(89,302)	(136,706)	(148,033)	(206,816)	(238,132)
	(식 용 육 류)	(22)	(-)	(10)	(2,979)	(4,390)	(7,897)	(38,602)	(12,926)	(13,744)
	수 출	1,815	442	251	829	2,019	381	2,566	7,838	1,818
	(철 강)	(1,491)	(234)	(54)	(470)	(1774)	(21)	(2,385)	(7,209)	(1,723)

자료: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그림 5〉 대중 무역에서 동북삼성의 위상

(단위: %)



자료: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수출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북한의 대동북삼성무역이 성장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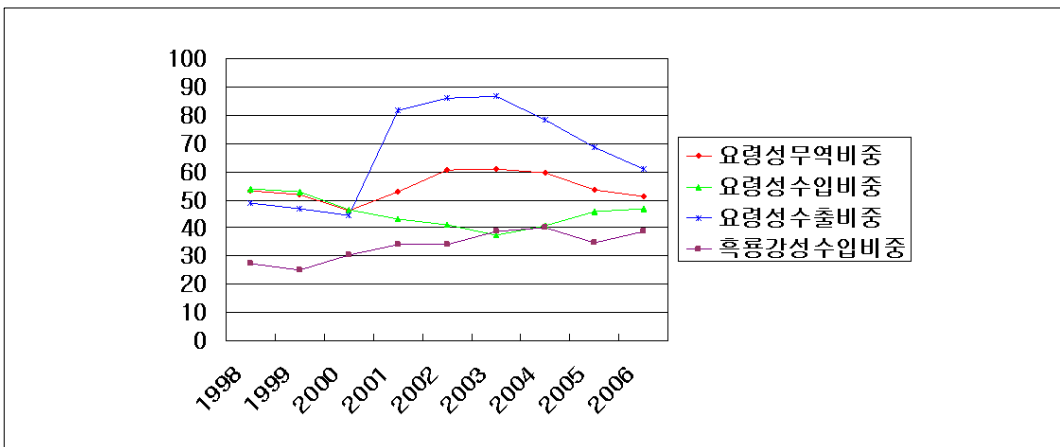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5〉는 북한 수출입에서 동북

삼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2002년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북삼성의 위상은 2001년부터 어패류와 의류부속품의 대요령성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림 6〉 동북삼성내에서 요령성의 위상

(단위: %)



자료: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한때나마 높아졌었다. 그렇지만,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중국의 연해지역 성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생산과잉에 의한 단가하락, 일본의 경제제재여파 등으로 어패류의 대중 수출이 2005년부터 급감하면서 2005년부터는 북한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동북삼성의 비중은 70%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동북삼성내에서 요령성의 위상변화이다. 북·중 무역의 약 70%대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삼성의 대북한 지방무역의 전통적 중심지는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요령성 단둥이었다. 그리고 <그림 6>이 보여주듯이 2001년 이전 동북삼성 수출 및 수입의 약 50%는 요령성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2001년을 분수령으로 북한의 수출 및 수입에서 요령성의 위상이 격변하면서 대북한 수출입에서 동북삼성의 상대적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는 요령성이,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는 흑룡강성이 각각 약 10% 정도 시장점유

율을 확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동북삼성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를 비롯한 동북삼성의 상대적 위상이 재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 Ⅲ. 중국자본의 대북투자 실태와 특징

북한의 대중 자본유치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조짐은 2003년부터였다. 예를 들어 2004년 중국의 대북투자는 5,000여만 달러(공식투자액 900만 달러)로 북한의 2004년 투자유치총액 5,900만 달러의 85%를 차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2)</sup>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1999년까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공식적으로 비준한 중국의 대북투자기업은 6개사, 투자누계액 188만 달러가 전부였다(<표 6> 참조). 그리고 북·중 고위급 상호방문이 중단된 1993~1999년 기간 중국의 대북공식투자 누계액은 104만 달러에 불과했다. 물론 동 기간

〈표 6〉 연도별 중국의 대북투자현황(상무부 신고기준)

(단위: 개사, 천 달러)

구 분	1990이전	1993-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기업수	6	3	0	2	4	5	8	25
투자액	1,878	1,040	0	2,600	1,503	3,526	8,999	18,506

자료: KOTRA,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2006, p.13에서 재인용

2) 흑룡강신문, 2005. 6. 3.

중 중국의 실제투자는 협의기준 누계 260개 항목 1.7억 달러, 집행금액 6,700만 달러였음<sup>3)</sup>을 감안하더라도 5,000여만 달러의 대북투자는 분명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중국과 북한의 태도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북·중 고위급 상호방문의 재개(1999), 플러스 경제성장기조의 정착(1999년이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개혁·개방의 진전(2002) 등은 투자유치에 긍정적 여건을 조성했지만 열악한 투자환경, 신의주특별행정구를 둘러

싼 북·중 불협화음(2002), 그리고 핵개발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증폭 등은 분명 투자유치에 부정적 신호였다.

## 1.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강화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태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라선경제특구에 대한 재평가이다. 비록 중국이 UNDP의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중앙정부나 길림

〈표 7〉 라선지대 주요국별 투자액 추정 현황(1993~2003)

(단위: 천 달러, 개사, %)

구분/년도	1993~1997	1998~2003	1993~2003
중 국	13,283(23.7%)	31,462(29.6%)	44,745(27.5%)
일 본(총련포함)	5,387(9.6%)	514(0.5%)	5,901(3.6%)
홍 콩	18,448(32.9%)	53,885(50.6%)	72,333(44.5%)
영 국	342(0.6%)	-	342(0.2%)
호 주	-	1,310(1.2%)	1,310(0.8%)
네 덜 란 드	7,855(14.0%)	-	7,855(4.8%)
태 국	10,000(17.8%)	16,880(15.9%)	26,880(16.5%)
싱 가 포 르	760(1.4%)	249((0.2%)	1,009(0.6%)
배 트 남	32(0.1%)	-	32(0.0%)
대 만	-	2,096(2.0%)	2,096(1.3%)
계(A)	56,107(100.0%)	106,396(100.0%)	162,503(100.0%)
투 자 건 수(B)	75	74	149
A/B	748	1,438	1,091

자료: 조총련 및 TRADP 관련자료

3) 위언지(徐文吉),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남한·중국·북한간 협력전망,”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남북한』, 인천발전연구원, 2005, p.32.

〈표 8〉 라선지대 국별 투자현황 추정(투자이행기준: 1993~2003)

(단위: 개사)

구분/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중 국	-	-	9	11	23	19	8	10	14	3	8	105
일 본(총련포함)	-	1	5	9	1	1	4	-	1	-	2	24
홍 콩	-	-	4	2	2	-	1	-	-	-	-	9
러 시 아	1	-	-	-	-	-	1	-	1	-	2	5
영 국	-	-	3	-	-	-	-	-	-	-	-	3
호 주	-	-	-	-	-	-	1	1	-	-	1	3
미국(재미동포포함)	-	-	1	-	-	-	1	-	-	-	-	2
네 덜 란 드	-	-	1	1	-	-	-	-	-	-	-	2
태 국	-	-	1	-	-	-	-	-	-	-	-	1
싱 가 포 르	-	-	-	1	-	-	-	-	-	-	-	1
배 트 남	-	-	-	-	1	-	-	-	-	-	-	1
계	1	1	24	24	27	20	16	11	16	3	13	156

자료: 조총련 및 TRADP 관련자료.

성정부는 라선지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는 않았다. 아래 〈표 7, 8〉은 2003년 이전 중국의 라선지역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라선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1993~2003)는 통신프로젝트에 투자한 태국의 록슬리 그룹(총투자 약 2,800만 달러), 호텔사업에 투자한 홍콩의 엠페러그룹(총투자 1억 7,419만 유로) 등 서방의 대형투자와는 달리 평균투자규모 43만 달러(전체투자의 평

균투자규모 109만 달러)의 소규모투자가 주류를 이루어 총투자기업수에서는 67.3%를 차지했으나 총투자금액에서는 30%에 불과하였다.<sup>4)</sup> 다만 동아시아금융위기 이후(1998~2003) 일본은 투자축소, 서방은 대형투자유지속 관망세를 보였지만, 중국이 투자확대에 나서면서 소액이지만 중국기업에 의한 제조업투자가 시작<sup>5)</sup>된 것이 특기할 만했다<sup>6)</sup>.

그러나 2003년 11월 중국 길림성 연변조

4) 2005년 9월 장춘투자포럼 라선투자설명회시 북한측 발표에 의하면, 2005년 8월말기준 라선지역에 대한 투자는 외자 1억 3,000만 달러, 내자 7,000만 달러로 총투자는 2억 달러 수준이며 98개의 외국투자기업과 80개의 북한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중국의 라선투자가 증대되면서 1993~1997년 기간 총 77건 중 4건, 50만 달러에 불과하던 제조업투자가 1998~2003년 기간 1,900~200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6) 배중렬, “북한의 외자도입현황과 과제: 라선경제특구 사례분석,” 『수은북한경제』, 2005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p.41~48.

선죽자치주 훈춘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2005년 9월 라  
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설립 계약체결이 바  
로 그것이었다.<sup>7)</sup> 특이한 것은 50대 50의  
북·중 합영회사인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sup>8)</sup>  
가 라진항 제3호 부두와 제4호 부두(신설예  
정)의 50년간 사용권 및 원정-라진항간의  
도로(48km)의 50년간 운영권을 가지며,  
업무내용에 보세가공구 및 관광시설 개발  
및 경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라진항의 개진확장과 원정-라진항간의  
도로포장은 TRADP사업이 추진된 이후 북  
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마땅한 투자자  
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그  
런데 TRADP 장춘투자포럼(2003. 9. 2~  
4)이 새로운 계기를 조성했다. 중국의 '도

로·항구·개발구 일체화'하는 새로운 대  
TRADP전략의 가시화가 결정적이었다.

## 2. 전략적 산업분야 대한 진출강화

두 번째 특징은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한  
진출 강화이다. 2003년부터 본격화된 중국  
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라선경제특구에만 한  
정되지 않았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  
으로 경제협력이 시동되었다. 크게 지하자  
원개발형 투자, 사회간접자본공동개발형 투  
자, 수산자원 생산제휴, 현지시장개발형 투  
자 등 4가지 분야가 주목된다.

첫째는 길림성 통강(通鋼)의 무산철광개  
발(약 9억 달러)<sup>9)</sup>, 중국 최대광물자원수출  
업회사인 오광(五礦)그룹의 용등탄광개발함

7) 중국 훈춘시와 북한 라선시의 지방정부간 교섭이 2003년 12월부터 진행되어 2004년 9월에 기본합의가 이루어지고, 2005년 9월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2006년 1월에는 북한 중앙경제협조관리기관(중앙경제협작관리국)의 비준을 득했으며, 2006년 2월에는 라진항의 개발을 담당할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를 설립하여 라선시에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였다(唱新,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 2006년 5月号, 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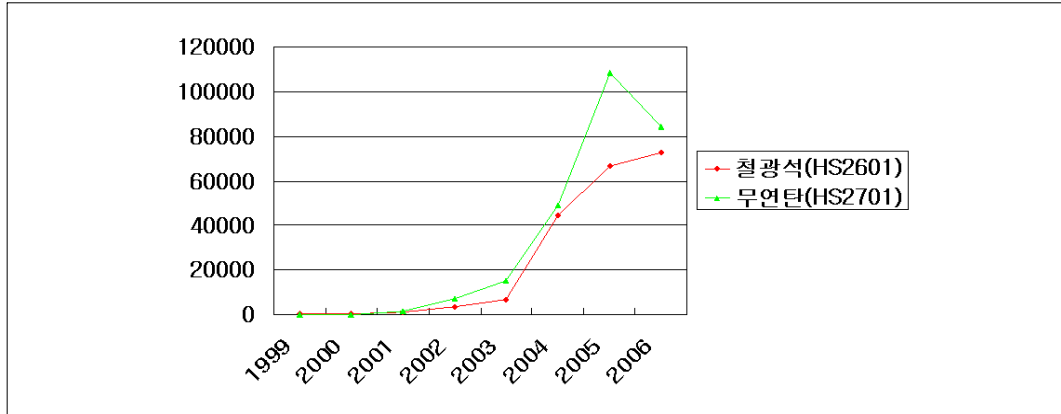
8) 등록자본금 6,090.40만 유로로 북한측의 항만과 도로의 사용권이, 중국측의 3,000만 유로의 자금, 설비, 건축재료가 투자되는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는 중국측의 훈춘동립경제무역유한회사, 훈춘변경경제합작구보세유한회사가, 북한측의 라선시인민위원회 경제합작회사가 50 대 50으로 참여하였다. 주요업무내용은 ①중계화물취급, ②대리수송, ③보세가공구 및 관광시설 개발 및 경영 등이며 구체적 개발계획은 2006년 5월부터(2006년 인민폐 2.4억 위안 투자계획) 원정-라진항간 도로(중국 표준2급 도로기준) 건설을 시작으로 라진항 3호 부두 개조, 5만km<sup>2</sup>의 공업단지와 보세가공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흑룡강신문 2005. 9. 21, 연변일보 2005. 9. 15 및 2006. 2. 27, 길림신문 2006. 2. 28 및 3. 25).

9) 2003년 중국 길림성 상무청과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 이하 通鋼이라 약칭)이 무산철광개발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시작된 북·중간 무산철광 공동개발은 2004년 후반에 정식교섭에 들어가 2005년 2월에 공동개발협정이 조인되었다. 공동개발계획에 의하면 중국의 통강(通鋼), 연변천지공사(延邊天地公司), 중강(中鋼)그룹의 공동출자로 인민폐 약 70억 위안(약 9억 달러)을 투자하여 그중 50억 위안은 광산개발을 위한 기계·설비 투입에, 20억 위안은 통화-무산간 도로·철도·송전시스템 정비에 사용하며 그 대가로 통강은 50년간 채굴권을 획득해 연간 1,000만톤의 철광석을 캐낸다는 것이다(唱新, "中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 2006년 5月号, p.33).

〈그림 7〉

## 철광석·무연탄의 대중 수출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영(2005년 10월 오의부총리방북시 조인)<sup>10)</sup>, 중·조해상석유공동개발협정(2005년 12월 노두철 부총리 방중시 조인), 중국 산둥국대 황금주식유한공사의 해산청년동광의 공동개발(800만유로)<sup>11)</sup> 등 지하자원개발형투자이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이전 철광석과 무연탄의 대중 수출은 미미하였다. 비록 북한이 철광석, 무연탄의 매장량은 높으나 채굴량의 증대, 경제난에 의한 전력부족,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중국 투자전 전체 공장가동률은 30% 이하로 추정되었다. 아

시아 최대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해산동광도 자연재해, 에너지결핍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중단된 상태였다.<sup>12)</sup>

지하자원의 대중 수출증가<sup>13)</sup>는 중국측의 사전설비투자과 수입을 위한 인프라정비가 중요했다. 예를 들어 무산철광개발의 경우 중국은 2003년 중국 화룡(和龍)과 북한 무산(茂山)을 연결하는 남평(南坪)다리의 개건(길이 160m, 폭 12m)을 완료하면서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를 통해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 위안 규모의 설비를 투자하

10) 용등탄광은 한때 연간생산량이 300만톤에 달한 북한최대규모의 무연탄 탄광이었지만 현재는 연간 100만톤 정도의 석탄이 생산되고 있다(KOTRA,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2006, p.16).

11) 2006년 1월 북한 중앙경제합작국의 비준을 얻어 설립된 해산초금합영회사(惠山招金合營會社)는 중국 초금 집단 산둥국대황금주식유한공사(山東國大黃金株式有限公司)와 북한 해산청년광산의 50대 50의 합영으로 등록자본금 800만유로, 합영기간은 25년이다(投資朝鮮, 2006. 1. 16; <http://www.idpr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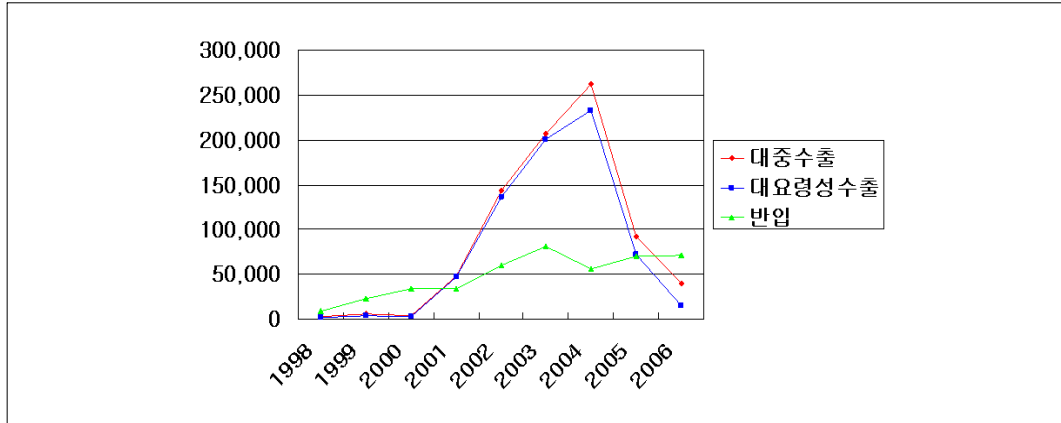
12) 길림신문, 2005. 1. 1.

13)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무연탄이 북한의 대중국 제1의 수출품으로 부상하였는데 그것은 중국의 수입증대가 결정적이었다. 2003년 15,428천 달러로 대중수출액 제5위였던 무연탄은 2004년 49,085천 달러 대중수출액 제4위, 2005년 108,273천 달러 대중수출액 1위로 부상하였다.

〈그림 8〉

어패류의 대중수출과 대남 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였다. 남평세관을 통한 철광분 수입이 시작되면서 2003년 6,942천 달러에 불과하던 철광석 수입은 2004년 44,521천 달러, 2005년 66,521천 달러, 2006년(1~11월) 72,489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중반 무산 철광석 수입을 위한 선광공장도 완공한 중국은 무산철광석분의 통관수송을 위해 덕화진(德化鎮)에서 시작하여 화룡역에서 끝나는 백산진-천양철도(44km, 투자액 6.6억 위안)를 2007년부터 착공·건설하여 중국과 북한이 공동 경영할 예정이다.<sup>14)</sup>

둘째는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라진항만과 함작구의 공동개발(3,000만 유로), 압록강수계에 수력발전소의 공동건설(4,500만

달러) 등 사회간접자본공동개발형 투자이다. 항만에 대한 접근력 강화는 조선국토병화사의 요령성 단동-북한 남포항로의 개통(2005. 8; 주 1회 운행), 훈춘-자루비노-속초항로에 신동춘호 투입(2006. 4. 6; 구 동춘호에 비해 항행시간 3시간 단축)<sup>15)</sup> 등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바다로의 출구가 없는 길림성의 입장에서는 북한, 러시아에 대한 항만 접근력의 강화는 길림성의 성장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흐름은 문악(중국어명 장천) 합작발전소의 건설이다. 압록강 수계에 기 건설된 북·중 합작발전소는 운봉(雲峯), 노호초(老虎哨), 수풍(水風), 태평만(太平灣)의 4기였다. 북·중 수력발전공사

14) 길림신문, 2006. 1. 29.

15) 연변일보, 2006. 5. 1.



제48차이사회(1995. 12. 1)에서 림토(중국명칭 망강루)는 중국측이, 문악은 북한측이 건설하기로 원래 합의되었었다. 그런데 중국 요령성 격림사투자유한공사(格林斯投資有限公司)가 4,500만 달러를 투자(총투자액 인민폐 4억 위안)해 설비용량 4.2만 Kw, 년발전량 1억6천Kw의 문악발전소를 건설하고 투자금액은 전력으로 상환을 받는다는 합작발전소 건설체결식(2006. 5. 14)이 중국 장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16)</sup>

셋째는 수산자원의 생산제휴이다. 중국은 20여년 개혁·개방과정에서 요령, 절강, 산둥, 복건, 광둥 등 연해지역의 원양어업과 수산물가공, 수송·유통시스템의 능력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북한의 수산자원에 대한 투자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2001년부터 발생했다. 변화의 축은 요령성이었다. 입어료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제공하는 거래<sup>17)</sup> 등이 성사되면서 동해안의 시장이 중국 어선에 개방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북한의 수산자원과 중국

의 생산능력이 결합되면서 북한의 어패류 대중수출은 급증했다. 그러나 동해안 어업 개발프로젝트의 추가<sup>18)</sup> 등 시장수요를 감안하지 않는 생산과잉이 발생하고 어패류에 대한 일본의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2005년부터 어패류의 대중 수출액은 감소되었다(<그림 8> 참조).

넷째는 제조업과 유통업에 초점을 맞춘 현지시장개발형 투자이다. 먼저 제조업분야의 투자는 ①2002년 9월에 생산이 개시된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南京熊貓電子集團有限公司)와 북한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의 합영인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총투자액 130만 달러, 연간 1만대 생산), ②2005년 10월 6일에 조업한 중국 베이징북성효정전자과학기술주식회사와 북한 카드식적산전력제조립공장의 합영인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 ③2005년 10월 7일에 생산이 개시된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와 북한의 대외경제합작위원회의 합영인 평진자전거합영회사(51대 49, 중국측

16) 림토와 문악 발전소 2기에 투입하는 총금액은 인민폐 9억 위안으로 보도되었다(길림신문, 2006. 5. 16 및 投資朝鮮, 2006. 5. 25: <http://www.idprkorea.com>).

17) 중국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 북한 상명무역총회사간의 어업생산제휴 프로젝트를 통해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인 원산항에서 50마일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권을 확보하였다. 2009년까지 5년간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제공하는 조건이며 계약에 따라 150톤급 저인망어선 16척과 냉동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중국선단이 투입되었다(연합뉴스, 2004. 11. 26).

18) 중국 요령성 대련해양어업집단(大連海洋漁業集團), 절강성 주산화웅원양어업공사(舟山華鷹遠洋漁業公司), 절강성 주산보타구원양어업공사(舟山普陀區遠洋漁業公司)와 북한 삼태성무역회사간에 체결된 동해안 어업 개발프로젝트에 의하면 작업시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총 60척의 원양어선을 투입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05년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5년 8월 현재 현지조업어선은 22척, 그중 원양어선이 16척이었다(投資朝鮮, 2005. 8. 17: <http://www.idprkorea.com>).

65만 달러의 설비·재료·현금 투입, 상표 모란봉, 연간 생산능력 30만대),<sup>19)</sup> ④2005년 11월에 조업한 중국 요령화풍목업주식 유한공사와 북한 은파산무역회사와의 합영인 은풍합영회사(55대 45, 중국측 80만 달러의 설비·원자재·기술로 출자, 합영기간 10년, 2003년 4월 계약체결, 2004년 4월 북한정부비준, 가축·가금·수산양식 사료 첨가제 생산)<sup>20)</sup>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통업투자에 있어서 관심대상은 2004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평양 보통강공동교류시장(조·중평양건축장식재료시장,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sup>21)</sup>이다. 건축자재, 강재, 도색재, 농기계, 수지제품, 고무제품, 비료, 기계부속품 등 각종 수입원자재·기계부속품·공업제품을 비롯하여 양변기 등 일부 생활소비품도 판매하는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은 현금, 은행구좌를 이용한 결제, 물자대 물자결제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은 일종의 수입생산재유통 종합시장으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이후 원자재, 중간재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북한 기관·기업소의 생산정상화가 1차적 목적이었지만, 이로 인해 중국 상품의 북한 내수시장으로의 접근력도 강화되었다.

또 하나 주목되는 프로젝트는 중국 온주상인들에 의한 평양 제1백화점에 대한 투자이다. 온주상인들은 2004년 평양 제1백화점의 10년간 경영권을 획득, 절강성의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인 종업원채용규제, 현지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투자를 방기하였다.<sup>22)</sup> 우여곡절 끝에 2006년 4월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의 부총경리인 로운외가 평양 제1백화점의 총경리를 맡고 평양 제1백화점의 매장 4개층 36,000평방미터 가운데 우선 1층 매장 1만 평방미터를 임대하여 소형점포 1,000여개를 온주상인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이었다.<sup>23)</sup>

19) 길림신문, 2005. 10. 29.

20) 投資朝鮮, 2006. 5. 9(<http://www.idprkorea.com>).

21)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은 단둥시 대외경제무역국과 단둥무역촉진회의 노력으로 대련의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둥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중국의 4개사와 북한 무역성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가 1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으로 건설하였다. 조선무역촉진위원회의 계약서보증을 바탕으로 중국 7개성에서 온 40여개 기업이 2004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정식 개업은 2005년 6월에 이루어졌다.(흑룡강신문, 2004. 11. 29; 길림신문, 2004. 12. 30; 조선신보, 2004. 10. 26)

22) 중국 심양 중육집단(中旭集團) 온주상인 증창표 회장의 투자(인민폐 5,000만 위안, 약 600만 달러 투자, 수입관세·소득세 5% 부과의 특혜)방기이후 중국 절강성의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와 조선철명무역회사간에 생활잡화와 의류 등을 공동판매하는 절강상품판매시장(백화점 3개층 총면적 15,000평방미터)의 개설이 상호 합의(2005. 5)되었다.(흑룡강신문, 2005. 9. 10)

23) 흑룡강신문, 2006. 5. 1.

### 3. 대북투자선의 변화

중국의 대북투자는 전통적으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관심대상이었으며, 주로 라선경제특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그 대상지역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북투자진출은 요령성과 단둥을 중심으로 하여 길림성과 훈춘시, 그리고 온주상인을 비롯한 남방계기업들<sup>24)</sup>이 선도하기 시작했다. 요령성의 보통강공동교류시장 및 문악발전소 건설, 길림성의 무산철광개발, 훈춘시의 라진항 공동개발, 온주상인들의 평양제일백화점 진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 결과 평균 50만 달러 미만 소형투자위주의 중국의 대북한 투자패턴에 대형투자가 급증하고 기업투자시찰단의 북한 파견<sup>25)</sup>, 조선투자환경설명회의 개최<sup>26)</sup>, 투자박람회 참여 등 중국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진출 움직임이 활성화되었다. 예를 들어 제9회 평양봄철국제상품전시회(2006. 5. 15~18)에 참여한 외국기업 196개사중(총참여기업 217개 기업) 중국기업이 179개사이며, 그중 요령성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국 기업의 대북진출에 있

어서 요령성의 위상을 실감하게 한다.<sup>27)</sup>

## IV.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와 전망

### 1. 북·중 경제관계에 대한 평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둘러싼 북·중 불협화음은 이례적이었다. 물론 북한의 우라늄농축핵개발이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반대는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었다. <표 9>은 북한의 핵개발 파동속에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둘러싼 북·중 불협화음이 북·중 경제관계의 강화로 귀결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다.

#### 가. 북한측

우선은 북한측의 태도변화 배경이다. 북한은 2004년 8월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건설을 사실상 포기<sup>28)</sup>하면서 외국인투자법 개

24)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통일정책연구』, 514권 1호, 통일연구원, p.247.

25) 북건설의 7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투자시찰단의 평양방문(2004. 8. 31), 중국 사천성 31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북투자무역사절단의 평양방문(2004.11. 16) 등이 이에 해당된다(임금숙, 위의 논문, p.247).

26) 조선투자환경설명회는 절강성 온주시(2004. 7), 요령성 심양시(2004. 11), 북경(2005. 2. 25) 등지에서 개최되었다.

27) 연변일보, 2006. 5. 16.

28) 남문희, “북한 신의주 특구개발 올스톱,” 『시사저널』, 2004. 8. 31 및 東アジア貿易研究會 “北朝鮮經濟改革

〈표 9〉 북·중 경제협력관련 주요동향(2002. 9~2005. 12)

년 월	주요 경제협력관련 동향
2002. 9	신의주특별행정구법 제정(북한측)
2002.10	신의주특별행정구 초대장관 양빈 중국당국에 의해 가택연금, 미국측 북한의 우리농축 핵개발의 억제기
2002.11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의 조속한 조정과 개조를 지지”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담긴 보고서채택(중국 공산당 16차대표대회)
2003. 6	변중(邊衆)의 “고구려역사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 광명일보 게재(역사논쟁 시작)
2003.10	당중앙과 국무원명의로 “중공 중앙 동북지구 등 노공업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이라는 11호문건 발표
2004. 2	대북투자자문회사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 설립(중국정부차원의 대북진출 총괄)
2004. 3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진흥동북 영도소조판공식” 설치
2004. 4	김정일 방중시 원자바오총리는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장려한다”고 천명
2004. 8	신의주특별행정구 건설 잠정 중단
2004.11	요령성 심양시 기업가협회 대북투자설명회 개최(중국측: 중국 기업인 500여명 참가)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외국투자관계법·규정의 정비시작(북한측)
2005. 1	첸화오민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이사장을 북한의 외자유치대표로 공식임명
2005. 2	조선투자환경설명회 북경에서 개최(대경주 김영민부위원장 참석: “2004년말 현재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약 300개사이며 그 가운데 40%가 중국기업”이라고 밝힘)
2005. 3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및 환경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2005. 6	“국무원 판공청, 동북 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의 진일보확대를 추진할 것에 관한 실의의견” 발표(36호문건)
2005. 9	길림·동북아투자박람회, TRADP 제 8차Commission회의, 투자포럼의 공동개막(중국 장춘: 두만강 지역개발협정 10년 연장, 중국의 새로운 대TRADP전략 가시화, 북한측 110명 대규모 대표단 파견)
2005.10	3대 중공업분야(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개발원조 합의, 중국 11차5개년 계획기간중 경제협력협정서명(吳儀 부총리, 후진타오 국가주석 방북시)
2005.12	북·중 해상원유개발협정체결(북한 노동철부총리 중국방문)

정(2004. 11)<sup>29)</sup> 등 중국의 대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몇 가지 견해가 표출되었다. 첫째는 국제적 고립에 따른 불가피

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일본의 북한선박의 입항조건 및 대북수입품검사 강화 등 대북제재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북한정

の中核 新義州特區の開発断念(東京新聞 11月 7日), 『東アジア經濟情報』 No. 137, 2004年 11月号, p.15.

29) 북한은 2004년 11월 30일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라선경제무역지대법(2005. 4. 19) 등을 수정보충하고 2005년 중반에는 외국인투자 관련규정들을 정비하였다(북한 법제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역사적 전개와 그 특성,” 『수은북한경제』 2006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pp.28~57).

제의 외화획득능력이 축소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내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sup>30)</sup>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대중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대남 경제관계의 강화에도 박차를 가했다는 점이다. 2002년 11월 이후 남북투자법제가 마련<sup>31)</sup> 되면서 개성특구의 건설이 본격화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북한경제는 1999년부터 오랜 마이너스 성장기조를 탈피했으나 계획경제의 복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새로운 시도로서 2002년 북한당국은 환율을 포함 전반적인 물가조정을 단행하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시장상황은 북한당국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이 중요해졌다. 하나는 심화되는 인플레이션<sup>32)</sup>에 대한 대책의 준비였다. 다른 하나는 경제제

건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의 마련이었다. 달리 말해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채택한 완충기 경제계획(1994~1996) 이후 새로운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는 북한경제의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남한과 중국의 투자유치, 그리고 2005년 10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개발원조 합의<sup>33)</sup>, 중국 11차 5개년 계획기간중의 경제협력협정 서명<sup>34)</sup> 등은 바로 이러한 북한경제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나. 중국측

다음은 중국측의 태도변화 배경이다. 중국기업의 자본축적 증가에 위한 글로벌화, 경제성장에 필요한 천연자원의 확보, 동북진흥계획에 의한 유희설비의 증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시장에 대한 중국기업의 기대감 제고 등 여러 요인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중

30) 양장식·우상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전망,” 『수은북한경제』2005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pp.77~78.

31) 남북투자법제는 ①금강산관광지구법(2002. 11. 13) 및 개성공업지구법(2002. 11. 20)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3부터 동 시행규정들의 정비, ②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 등 남북당국간 4개 경제협합의서의 발효(2003. 8. 20), ③그리고 북남협력법의 제정(2005. 7. 6)으로 이어졌다.

32) 2003년 들어 보다 악화된 인플레이션은 1990년대 초반(5년간 5~10배)에 비해 훨씬 빠르며, 아사자의 대량속출(1995~1997)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였던 시장물가가 또다시 급상승세를 띠으며, 물자부족뿐만 아니라 현금통화증발이 보다 큰 영향을 미쳐 상황이 간단치 않았다(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수은북한경제』 2006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pp.56~57).

33)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방북한 중국 국무원의 뉘이 부총리와 합의되었다(.KOTRA,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기획조사 06-010, p.15.

34) 정형곤, “북·중 경제협력 강화의 과급 영향,” 『KIEP 세계경제』2006년 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6~27.

경제밀착은 북한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중국경제의 자연스러운 성장결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발견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나 성정부의 개입흔적이다. 예를 들어 ①1999년 고위급상호방문 재개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북·중 무역(〈표 1〉 참조), ②북·중 무역을 제외할 경우 거의 10여년간 14~15억 달러대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액(〈그림 3〉 참조), ③2001년부터 북한의 대중, 특히 요령성에 대한 급속한 수출 증대(〈표 3〉 및 〈표 6〉 참조), ④광산개발·제철공업·항구개발 등 북한의 기간산업에 대한 개발원조 약속과 관련인프라건설의 11차 5개년 계획 반영, ⑤중국 정부차원에서 대북 진출을 총괄하는 대북투자자문회사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의 설립과 북·중 간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체결, ⑥과거와 다른 대형투자의 급증 및 대북협상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중국 성정부, ⑦국무원 판공청의 36호 문건,<sup>35)</sup> 성정부의 실시의견 등을 통해 대북투자기업에 대한 금

용지원책<sup>36)</sup>의 강구 등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둘째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전략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①전력, 통신, 수송 등 인프라의 열악, ② 30%이하의 낮은 공장가동률, ③설비·자재의 태부족, ④정책의 투명성 결여, ⑤국내시장 보호, ⑥외화교환의 규제, ⑦대량의 밀수품유입 등 여러 투자의 제약요소에 인해 투자 수용성이 높지 않으며, 그 결과 경제성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독자적 진출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사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나름대로의 최적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달리 말해 중국의 대북투자는 민간기업 단독으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로의 진출이라는 시각보다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사전방침 결정을 반영하여 전략적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성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①대북투자자문회사, 성정부의 사전타당성조사 및 협상지원, 투자법정비와

35) 예를 들어 2005년 6월 31일자 국무원 판공청의 「동북 노공업기지의 대외개방의 진일보 확대를 촉진할 것에 관한 실시의견」의 19항에는 “합자, 합작, 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한다. 관련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지원체계를 완비한다. 동북지역 기업의 해외중점개발항목에 대해 전단계 비용과 국내대출이자를 적극 보조, 지원한다.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하도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이정철,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2006년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제23회 정책포럼, 2006. 4. 26, 〈부록 2〉 참조)

36) 〈개방으로 발전을 이끄는 전략에 관한 중공 길림성당위, 길림성정부의 실시의견〉에서 “기업들이 해외지원항목에 참여하고 해외 기초시설 건설항목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한다. 특히 제1자동차그룹, 통화강철그룹 등 중점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건설을 지지한다. 해외에서 개발하는 중점항목에 대하여 길림성 중점항목 전단계 사업경비, 기업기술개조자금으로 밀어 준다”고 하였다.(길림신문, 2006. 3. 14)

투자협정 체결, 해외합작구 건설지원 등 대북투자리스크 해소를 위한 노력, ②무산철광 및 라진항만개발사례에서 보듯이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대북투자관련 인프라정비를 11차 5개년 계획에의 반영을 통해 대북투자유인의 제공, ③동해안 입어료를 전제제품 등 현물로 제공하는 시장수요에 맞춘 바터거래방식의 투자협상, ④투자자금 및 설비제공을 전력상환으로 해결하는 발전소 건설, ⑤무연탄, 철광 등 지하자원개발형투자에서 보듯이 중국 국내의 수입수요를 개발수입으로 전환, ⑥평양 제1백화점 진출, 보통강공동교류시장 설립 등 유통채널 장악을 통한 북한 내수시장으로의 접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①철광, 동광, 유전 등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②항만, 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개발, ③컴퓨터, 적산전력계, 사료첨가제, 자전거, 백화점 등 현지시장개척형투자, ④동해안 어로, 양식업 등 수산자원생산제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에서 북한의 투자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중국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대연변조선족자치주정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의 이중성이다.

중국의 요령성 및 온주상인 등 남방계 기업들의 전향적 대북 경제진출은 중국 경제발전흐름의 동북삼성으로의 과급이라는 면에서 긍정적 흐름이었다. 그러나 무게중심이 요령성 단동과 길림성 정부로 실리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장래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훈춘시의 한족화정책, 장백산관리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백두산관리권의 길림성 이전,<sup>37)</sup> 연룡도(연길, 용정, 도문)일체화정책 등 중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해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는 동북4성론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론<sup>38)</sup>에 힘을 실어주는 조처였다. 달리 말해 최근 중국의 대북 경제진출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경제의 국제화나 북한 계획경제의 정상화 지원 등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요소가 분명 발견된다는 것이다.

##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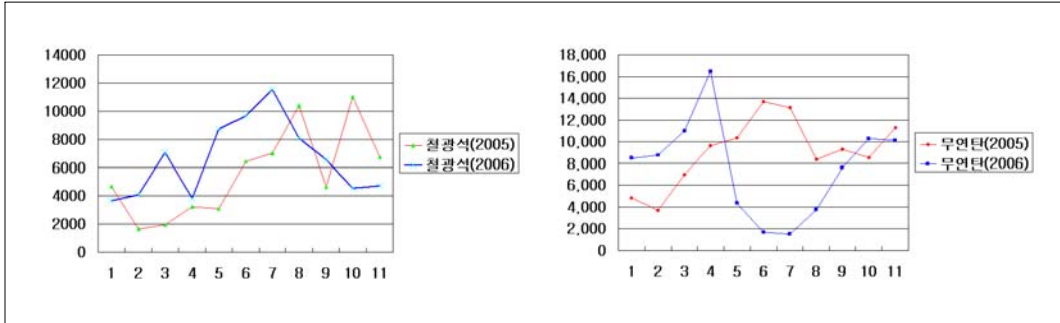
북한의 미사일 발사(2006. 7. 5) 및 핵실험(2006. 10. 9)구도속에 중국은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중 경제통계는 그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연탄 및 철광석 등 주요품목의 월별

37) 길림신문, 2006. 5. 18 참조.

38) 동북4성론은 “중국자본의 대북진출은 고구려 역사왜곡에 이은 경제적 차원의 동북공정사업이다”는 주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최근 조·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2006. 4. 20, pp.31~37 참조).

〈그림 9〉 무연탄 및 철광석의 대중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KITA.NET

대중 수출(〈그림 9〉 참조)에 있어서 일부 이상징후가 보였으나 전반적인 대중 월별 수출입 통계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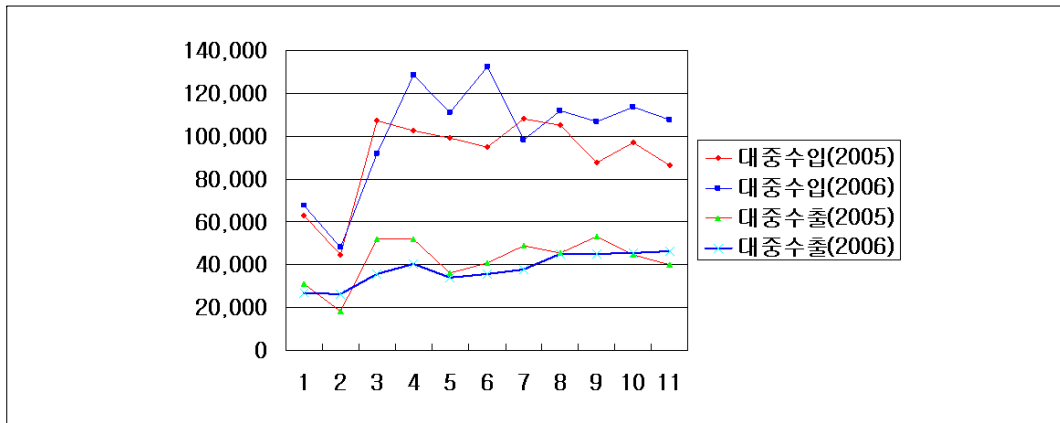
HS Code 4단위 기준, 2003년이후 대중 수입 1~3위 품목인 원유, 돼지고기, 석유·역청유(조제품 포함) 등은 2005년 대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고, 2005년이후 대중 수출 1~3위 품목인 무연탄, 철광석, 연체동물류(오징어, 조개) 등도 별다른 특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표 10〉에서 보듯이 2006년도 무연탄 수출액은 2005년도 수준을 조금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2006년도 철광석 수출액은

〈그림 10〉 대중 월별 수출입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KITA.NET



〈표 10〉 북한의 주요 품목의 대중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1	오징어, 조개 등	102,950	오징어, 조개 등	128,148	무연탄	108,273	무연탄	84,088
2	계류	78,652	계류	74,135	철광석	66,521	철광석	72,489
3	갈치, 명태 등	24,208	갈치, 명태 등	57,252	오징어, 조개 등	51,140	오징어, 조개 등	35,219
4	남성 의류	18,201	무연탄	49,085	철스크랩	34,890	남성 의류	17,973
5	무연탄	15,428	철광석	44,521	갈치, 명태 등	23,270	여성 의류	17,594

주: HS Code 4단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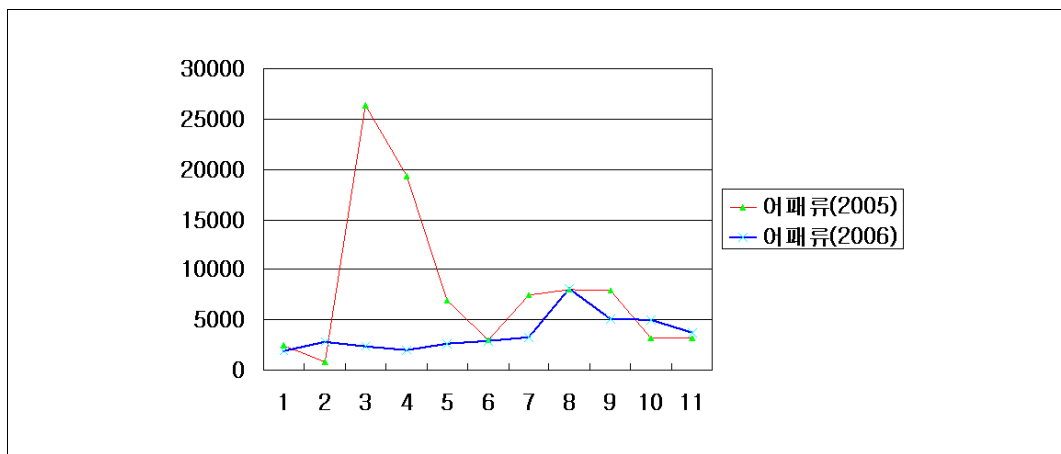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KITA.NET(2006년은 1~11월 통계)

2005년도 수준을 벌써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철광석의 대중 수출이 2006년 7월 이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렇지만, 이는 무산광산의 공동개발방식과 관련 북·중간에 모종의 불협화음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중국

의 대북 경제제재성 성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과성에 불과한 조치로 추정된다. 또한 어패류의 대중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것은 단가하락 및 생산과잉, 그리고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등의 여파이지 중국의 대북 경제제

〈그림11〉 어패류(HS Code 03)의 대중 월별 수출 추이


(단위: 천 달러)



자료: 무역협회 KITA.NET.

재로 보기는 어렵다.<sup>39)</sup>

위의 분석결과는 북·중 무역의 추세가 2007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대북 경제제재 으뜸장이 북·중 경제관계에 투영되지 않고 있다. 물론 북한의 제2차 핵실험 등 한반도 주변정세를 급변시키는 상황전개가 발생한다면 북·중 경제관계는 다른 궤적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중국 저가공산품의 북

한 내수시장 장악력, ②중국의 단동 및 두만강지역의 개발과 동북삼성지역의 산업시설 개조, ③북한의 중국기업유치 확대노력, ④2004년이후 실행단계에 들어선 대북투자 프로젝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북·중 경제관계의 지속적인 심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의 북중경제밀착은 그 근본적 동인이 중국 중앙정부의 드라이브로 분석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9) 2006도 어패류의 대요령성수출은 전년대비 크게 줄고 있지만 대길림성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무역협회 남북교역팀, 『2005년 북한 중국의 무역동향 및 시사점』, 2006년 2월 참조)

## 〈참고문헌〉

- 남문희, “북한 신의주 특구개발 올스톱,” 『시사저널』, 2004. 8. 31.
-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동반성장론과 동북4성론,” 『최근 조·중관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평화재단 4월 전문가포럼, 2006. 4. 20.
-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현황과 과제: 라선경제특구 사례분석,” 『수은북한경제』 2005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역사적 전개와 그 특성,” 『수은북한경제』 2006년 봄호, 한국수출입은행.
-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 『수은북한경제』 2006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 이정철, “북-중 경제협력관계의 변화: 현황과 함의,” 2006년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제23회 정책포럼, 2006. 4. 26.
- 임금숙,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통일정책연구』, 514권 1호(2005), 통일연구원.
- 양장식·우상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심화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5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 정형곤, “북·중 경제협력 강화의 파급 영향,” 『KIEP 세계경제』 006년 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명철·정승호, “UN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현장의 변화,” 『오늘의 세계경제』, 2006. 11.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쉬언지(徐文吉), “중국의 동북진흥계획과 남한·중국·북한간 협력전망,” 『중국의 동북지역개발과 남북한』, 인천발전연구원, 2005.
- 무역협회 남북교역팀, 『2005년 북한 중국의 무역동향 및 시사점』, 2006년 2월.
- 무역협회, KITA.NET.
- KOTRA, 『북한의 외자유치현황과 전망』, 기획조사 06-010, 2006.
- KOTRA, 『1990-200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001.
-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년도.
-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 길림신문, 2004. 12. 30.
- 길림신문, 2005. 1. 1 및 10. 29.
- 길림신문, 2006. 1. 29 및 3. 14.
- 길림신문, 2006. 3. 14 및 5. 16.
- 연변일보, 2005. 9. 15 및 2006. 2. 27.

연변일보, 2006. 5. 1 및 5. 16.

연합뉴스, 2004. 11. 26.

조선신보, 2004. 10. 26.

흑룡강신문, 2004. 11. 29 및 2005. 6. 3.

흑룡강신문, 2005. 9. 10 및 9. 21.

흑룡강신문, 2006. 2. 28 및 3. 25.

흑룡강신문, 2006. 5. 1.

投資朝鮮, 2005. 8. 17(<http://www.idprkorea.com>).

投資朝鮮, 2006. 1. 16(<http://www.idprkorea.com>).

投資朝鮮, 2006. 5. 9(<http://www.idprkorea.com>).

投資朝鮮, 2006. 5. 25(<http://www.idprkorea.com>).

唱新, “國と北朝鮮における經濟關係の變容,” 『世界經濟評論』, 2006年 5月号.

東アジア貿易研究會 “北朝鮮經濟改革の中核 新義州特區の開發斷念(東京新聞 11月 7日),” 『東アジア經濟情報』 No. 137, 2004年 11月号.